

미 증시, 옵션만기일 급격한 변동성을 뒤로하고 혼조 마감

서상영 sangyoung.seo@miraeeasset.com

미 증시 동향

- 미 증시는 중국의 경기 부양정책에 힘입어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자 상승 출발. 그러나 개별 종목 실적 발표를 통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자 S&P500 지수가 최근 고점 대비 20% 넘게 하락하며 약세장에 돌입. 이후 바닥 확인 작업이 지속된 가운데 옵션만기일 마감을 앞두고 급격한 되돌림이 유입되며 다우와 S&P500은 결국 상승 전환 성공하며 혼조 마감(다우 +0.03%, 나스닥 -0.30%, S&P500 +0.01%, 러셀2000 -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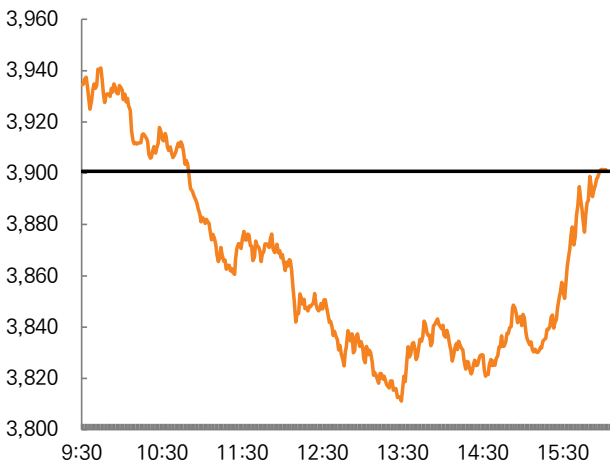
특이 종목

- 테슬라(-6.42%)는 S&P 글로벌이 기후 문제가 아닌 인종 차별과 열악한 근무 조건을 포함한 여러 요인으로 ESG 지수에서 제외한 이후 매물이 출회. 이런 가운데 일론 머스크의 성희롱 혐의를 소화하며 장중 한 때 11% 급락. 엔비디아(-2.51%)는 웰스파고가 25일 실적에서 데이터 센터 부문에서 견고한 성장을 기대하나 제품 주기의 수요 가시성, 현재 진행 상황 등 경영진의 논평에서 성장 둔화의 징후가 나올 경우 부진할 수 있어 목표주가를 370달러에서 250달러로 하향 조정하자 장중 한 때 8% 급락. 그러나 실적에 대한 기대 심리가 유입되며 장 마감 앞두고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낙폭을 크게 축소하며 마감. AMD(-3.28%)도 동반 하락

한국 증시 전망

- MSCI 한국 지수 ETF는 0.99%, MSCI 신흥 지수 ETF는 0.41%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73.44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4원 상승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74% 하락. KOSPI는 0.3% 내외 하락 출발 예상
- 미 증시가 옵션 만기일을 맞아 장중 한때 나스닥이 3% 넘게 급락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투자심리가 위축된 점은 한국 증시에 부담. 특히 소매 업종의 실적 발표를 토대로 경기 침체 이슈가 부각된 가운데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고 국채 금리는 하락하는 등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져 지난 금요일 상승분을 일부 되돌릴 것으로 전망. 다만, 중국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정책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상하이 봉쇄 해제를 앞두고 전반적인 중국발 투자심리 개선은 긍정적.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0.3% 내외 하락 출발이 예상되나 제한적인 등락 속 개별 종목 장세가 전개될 것으로 전망

S&P500 일종 차트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2,639.29	+1.81	상해종합	3,146.57	+1.60
KOSDAQ	879.88	+1.86	홍콩항생	20,717.24	+2.96
DOW	31,261.90	+0.03	베트남	1,240.71	-0.07
NASDAQ	11,354.62	-0.30	유로스톡스 50	3,657.03	+0.45
S&P 500	3,901.36	+0.01	영국	7,389.98	+1.19
캐나다	20,197.61	+0.08	독일	13,981.91	+0.72
일본	26,739.03	+1.27	프랑스	6,285.24	+0.2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변화 요인

하락시 매수 Vs. 반등시 매도 충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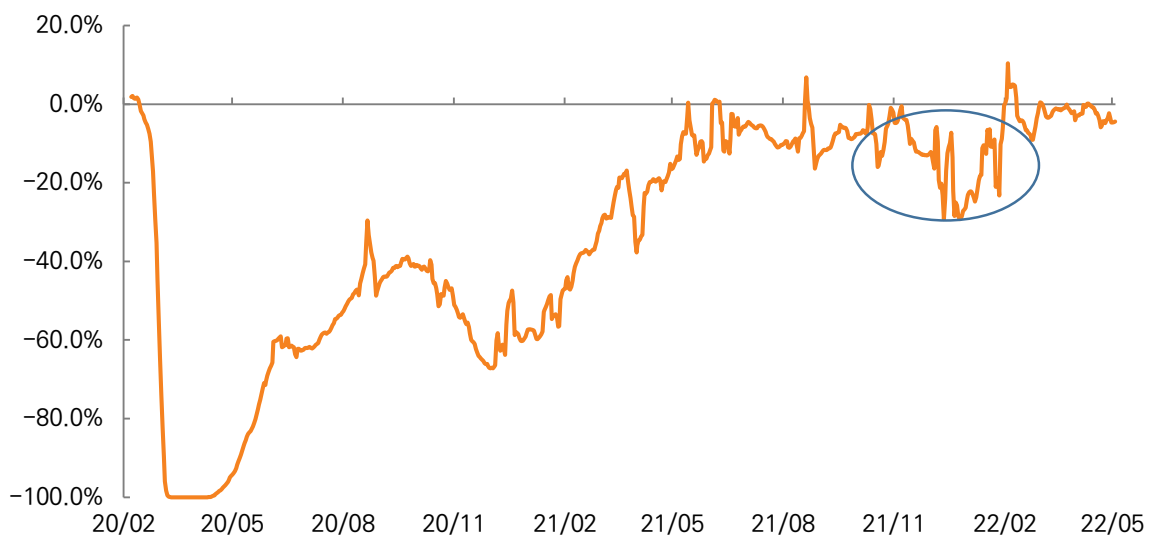
연준의 금리인상에 대한 집착이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뀌면서 최근 미국 주식시장은 하락. 특히 장중 S&P500이 지난 고점대비 20% 넘게 하락하며 약세장에 돌입. 이는 일부 소매 유통 업체의 실적 발표가 소비 행태의 변화에 따른 ‘경기 침체’를 가격에 반영하며 주가의 하락이 본격화 되었다고 볼 수 있음. 여기에 연준의 금리인상이 지속돼 기업들은 조달 비용까지 늘어나 이익 둔화 속도가 빠르게 전개될 수 있다는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

그렇지만, S&P500 12m Fwd PER은 16.4배로 5년 평균인 18.6배는 물론 10년 평균인 16.9배를 하회하는 등 밸류에이션 부담이 완화돼 반발 매수 심리 또한 높아지고 있어 ‘하락시 매수’와 ‘상승시 매도’가 충돌하며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최근 시장의 특징 중 하나는 기술주 중심으로는 ‘패닉셀’이 일부 나타나고 있으나 시장 전체적으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 이 또한 일부 시장 참여자들이 아직 바닥 확인이 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 있는 이유 중 하나. 그렇지만,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기술주의 ‘패닉셀’을 감안 오히려 바닥 확인을 이야기 하기도 함

한편, 소비 업종의 부진에 대해서 공급망 불안 등도 있지만, 오미크론 이슈 또한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 1분기 공항 이용객수는 2019년에 비해 76% 내외에 그쳤고, 레스토랑 예약 건수도 25% 정도가 감소해 대체로 75% 내외 좌석 점유에 그쳤음. 그렇지만, 인플레이션이 더욱 확대된 2분기에 공항 이용객수는 2019년에 비해 90% 내외를 기록하는 등 개선된 모습이었으며 레스토랑 예약 건수도 2019년에 비해 4% 내외 감소하는 등 견고한 모습을 기록.

이는 소비 행태가 변화 했으나, 리오프닝과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소비가 점차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음. 결국 최근 경기 침체 이슈를 부각 시켰던 소매 유통업체들의 실적 발표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과도한 움직임을 의미하며, 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경우 되돌림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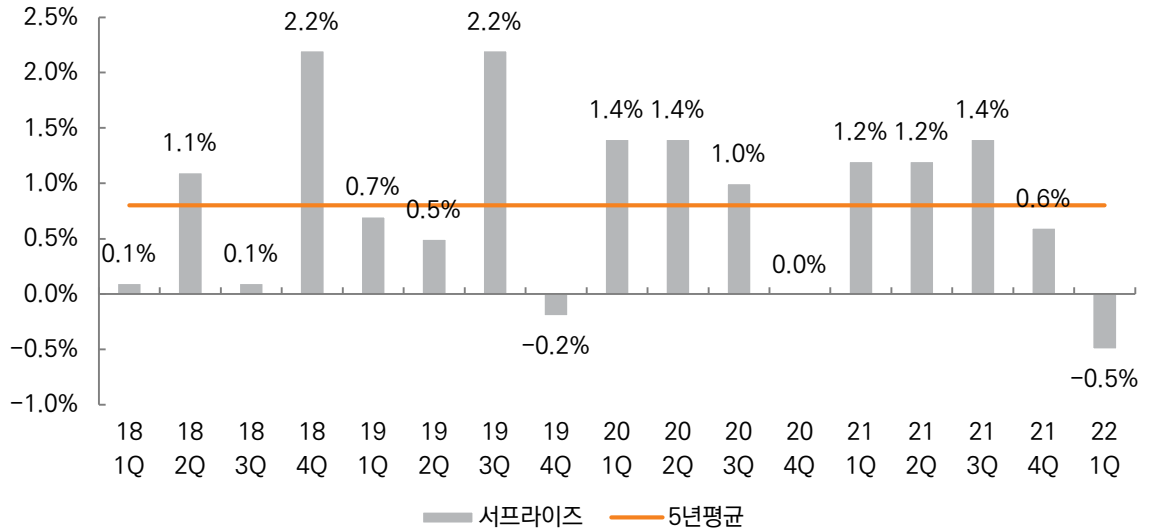
미국 레스토랑 좌석 점유율(2019년 비교)



자료: openTable,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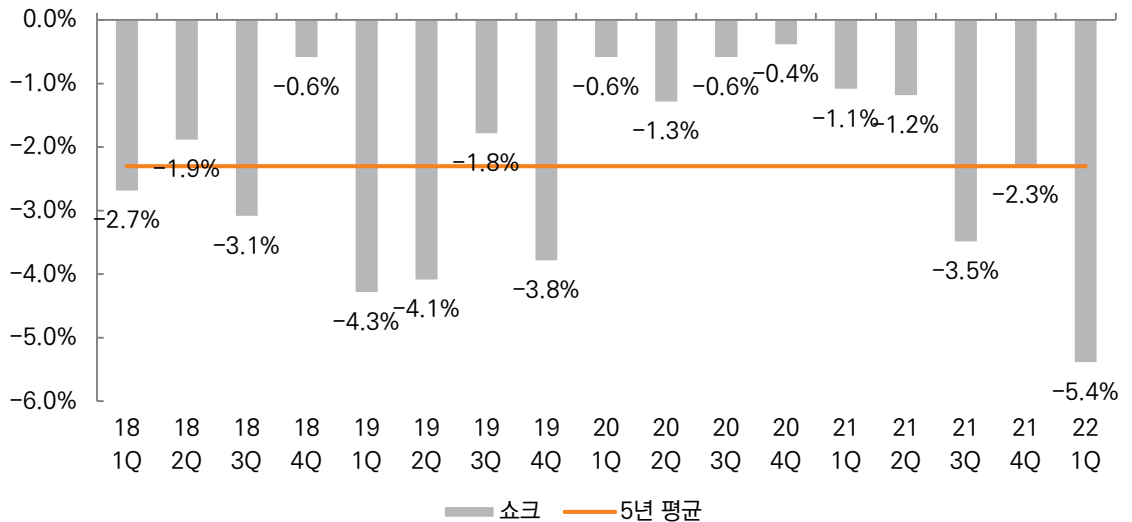
한편, 최근 시장의 변동성 확대의 또 다른 원인 중 하나는 향후 가이던스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추정. 이는 실적이 견고함에도 높은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불안으로 실적이 부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부각. 실제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서프라이즈한 결과를 내놓은 기업들도 당일 평균 0.5% 하락 했으며, 쇼크를 기록한 기업들은 5.4% 하락. 지난 2019년 4분기 실적 발표 당시와 같은 모습. 당시에 미국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이후 경기 침체 이슈가 시장에 영향을 줬던 시기. 이후에는 재차 정상적인 움직임을 보이며 견고한 실적을 발표 했던 종목 중심으로는 강세를 보였던 점을 감안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가 높은 종목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변경에 신경 써야 할 듯

S&P500 어닝 서프라이즈 당일 등락



자료: 팩트셋,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S&P500 어닝 쇼트 당일 등락



자료: 팩트셋,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개별 이슈에 민감(테슬라, 보잉, 엔비디아, 디어 등)

테슬라(-6.42%)는 S&P 글로벌이 기후 문제가 아닌 인종 차별과 열악한 근무 조건을 포함한 여러 요인으로 ESG 지수에서 제외한 이후 매물이 출회. 이런 가운데 일론 머스크의 성희롱 혐의를 소화하며 장중 한 때 11% 급락. 엔비디아(-2.51%)는 웰스파고가 25일 실적에서 데이터 센터 부문에서 견고한 성장을 기대하나 제품 주기의 수요 가시성, 현재 진행 상황 등 경영진의 논평에서 성장 둔화의 징후가 나올 경우 부진할 수 있어 목표주가를 370달러에서 250달러로 하향 조정하자 장중 한 때 8% 급락. 그러나 실적에 대한 기대 심리가 유입되며 장 마감 앞두고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낙폭을 크게 축소하며 마감. AMD(-3.28%)도 동반 하락

디어(-14.07%)는 이익은 예상을 상회했으나 매출이 공급망 압력이 지속되며 예상을 하회하자 급락. 캐터필라(-4.32%)는 강력한 실적이 지속되고 있으나, 디어의 급락 여파로 동반 하락. 로스스토어(-22.47%)는 부진한 실적 발표로 급락. 특히 올해 동일 매장 매출 전망을 하향 조정한 점이 급락 요인. TJX(-5.76%) 등 소매 업체는 물론 다음 주 실적 발표하는 달러 제너럴(-6.82%)와 자동차 부품 회사인 어드밴스 오토 파츠(-7.23%). 하락. 보잉(-5.07%)은 중국 동방항공이 보잉 737맥스의 운항이 이른 시기에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자 급락. 반면, 일리이릴리(+4.39%)는 중증 원형 탈모증 치료제에 대해 유럽 의약품청의 긍정적인 의견 발표로 상승. 화이자(+3.59%)는 어린이 백신 긴급 승인 소식에 상승.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XOP)	+0.60	대형 가치주 ETF (IVE)	+0.12
에너지섹터 ETF (OIH)	+0.13	중형 가치주 ETF (IWS)	-0.01
소매업체 ETF (XLY)	-1.74	소형 가치주 ETF (IWN)	-0.31
온라인소매 ETF (EBIZ)	-0.58	대형 성장주 ETF (VUG)	-0.15
금융섹터 ETF (XLF)	-0.18	중형 성장주 ETF (IWP)	+0.34
기술섹터 ETF (XLK)	+0.22	소형 성장주 ETF (IWO)	-0.08
소셜미디어 업체 ETF (SOCL)	+0.67	배당주 ETF (DVY)	-0.02
클라우드 ETF (CLOU)	-0.12	신흥국 고배당 ETF (DEM)	+0.88
미국 리츠 ETF (VNQ)	+0.64	신흥국 저변동성 ETF (EEMV)	+0.33
주택건설업체 ETF (XHB)	-0.32	미국 국채 ETF (IEF)	+0.46
바이오섹터 ETF (IBB)	+0.50	하이일드 ETF (JNK)	-0.09
헬스케어 ETF (XLV)	+1.22	물가연동채 ETF (TIP)	+0.04
곡물 ETF (DBA)	-0.67	미 투자등급회사채 ETF (LQD)	+0.49
반도체 ETF (SMH)	+0.05	모멘텀 ETF (MTUM)	-0.21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1개월(%)
헬스케어	1,510.91	+1.26	+0.90	-2.99
부동산	264.80	+1.19	-1.76	-14.26
에너지	618.93	+0.43	+1.09	+6.73
유틸리티	362.82	+0.27	+0.36	-3.85
필수소비재	732.76	+0.27	-8.63	-11.47
IT	2,285.75	+0.14	-3.77	-8.92
금융	546.49	-0.12	-1.77	-9.12
소재	517.15	-0.22	-0.13	-3.95
통신	193.79	-0.22	-3.01	-6.15
산업재	757.20	-1.07	-3.70	-9.02
경기소비재	1,098.91	-1.53	-7.44	-20.44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한국 주식시장 전망

제한적인 등락 속 개별 종목 장세 전망

MSCI 한국 지수 ETF는 0.99%, MSCI 신흥 지수 ETF는 0.41%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 물은 1,273.44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4원 상승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74% 하락. KOSPI는 0.3% 내외 하락 출발 예상

지난 금요일 한국 증시는 미 증시가 과매도에 따른 반등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과 달러/원 환율의 하락 등 위험 자산 선호심리가 부각되자 상승 출발. 이후 중국 인민은행의 5년물 LPR 금리인하 소식이 전해지는 등 중국발 경기 부양정책 소식에 상승폭 확대. 더 나아가 중국의 코로나 백신 긴급 사용 승인으로 중국 코로나 봉쇄 완화 가속화 기대가 높아진 점도 긍정적. 이에 힘입어 KOSPI는 1.81%, KOSDAQ은 1.86% 상승 마감

이런 가운데 미 증시가 옵션 만기일을 맞아 장중 한때 나스닥이 3% 넘게 급락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투자심리가 위축된 점은 한국 증시에 부담. 특히 소매 업종의 실적 발표를 토대로 경기 침체 이슈가 부각된 가운데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고 국채 금리는 하락하는 등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져 지난 금요일 상승분을 일부 되돌릴 것으로 전망

그렇지만, 중국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정책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상하이 봉쇄 해제를 앞두고 전반적인 중국발 투자심리 개선은 긍정적. 더 나아가, 유엔이 러시아산 곡물의 거래를 중재하려는 시도가 유입되며 밀 가격이 하락추세를 보이는 등 주요 상품가격 하락에 따른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진행이 더욱 확실시 된다는 점도 우호적.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0.3% 내외 하락 출발이 예상되나 중국의 경기 부양책을 감안 제한적인 등락 속 개별 종목 장세가 전개될 것으로 전망

주요 경제지표 결과

유럽 경제지표 예상보다 양호

독일 4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지난달 발표된 전월 대비 4.9%를 하회한 2.8% 상승했으나, 예상치인 1.2%를 상회.

영국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1.4% 증가해 지난달 발표된 -1.2% 감소보다 양호한 결과를 발표.

유로존 5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21로 예상(-22) 보다 양호한 결과를 발표.



FICC, 안전자산 선호심리 확대

국제유가는 중국의 상하이 코로나 봉쇄 해제 기대 및 경기 부양인지 표명 등으로 상승 했으나, 경기 침체 이슈로 상승 제한. 더불어 EU의 대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나, 세르비아가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을 위한 협상 소식 등 논란이 많아진 점도 보험권 등락 요인. 이러한 주변 여건으로 국제유가는 소폭 상승에 그침

달러화는 주식시장 급락 등 경기 침체 이슈가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자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며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 한편, 중국 역외 위안화 환율은 달러 대비 0.4% 강세를 보인 가운데 브라질 헤알, 러시아 루블화등도 강세를 보였으나, 호주 달러 등 일부 상품 환율과 신흥국 환율은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는 등 혼조 양상을 보인 점도 특징

국채금리는 경기 침체 이슈가 부각되자 하락. 특히 나스닥이 한 때 3% 넘게 급락하는 등 주식시장의 하락 또한 안전자산 선호심리를 높이는데 일조하며 금리 하락 지속. 물론 중국의 LPR 금리 인하 등 경기 부양정책 발표가 지속되고 있어 하락이 확대되지는 않은 가운데 10년물 국채 금리는 5.6bp 하락

금은 달러 강세 불구 안전자산 선호심리 속 소폭 상승. 구리 및 비철금속은 제한적인 등락 속 중국 경기 부양 의지로 강세. 곡물은 밀이 미국의 겨울밀 수확량이 201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나 유엔의 러시아산 밀 거래 중재를 위한 노력 소식이 전해지며 하락 지속. 옥수수에는 파종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아르헨티나 수출 한도를 늘릴 것이라는 소식에 하락. 대두는 수출 증가 소식에 강세.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1.93%, 철근은 0.11% 상승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110.28	+0.35	+1.52	Dollar Index	103.150	+0.41	-1.35
브렌트유	112.55	+0.46	+0.90	EUR/USD	1.0564	-0.23	+1.46
천연가스	8.08	-2.71	+5.48	USD/JPY	127.88	+0.07	-1.04
금	1,848.40	+0.03	+1.85	GBP/USD	1.2480	+0.10	+1.78
은	21.67	-1.07	+3.20	USD/CHF	0.9746	+0.25	-2.66
알루미늄	2,946.00	+1.36	+5.67	AUD/USD	0.7040	-0.13	+1.44
전기동	9,422.00	+0.07	+2.87	USD/CAD	1.2840	+0.12	-0.69
아연	3,707.00	-0.20	+6.23	USD/RUB	62.1396	-0.35	-3.97
옥수수	778.75	-0.57	-0.32	USD/BRL	4.8801	-1.00	-3.57
밀	1,168.75	-2.64	-0.74	USD/CNH	6.6998	-0.38	-1.47
대두	1,705.25	+0.87	+3.57	USD/KRW	1,268.10	-0.75	-1.25
커피	215.85	-1.30	+0.91	USD/KRW NDF1M	1,273.44	+0.77	-0.41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2.781	-5.59	-13.74	스페인	87.754	+4.22	+7.84
한국	3.240	-6.70	+1.00	포르투갈	95.712	+3.65	+6.71
일본	0.242	-0.10	-0.40	그리스	83.783	+17.66	+23.90
독일	0.944	-0.50	-0.40	이탈리아	82.569	+9.68	+14.77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